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에 노력...



화성육계지부가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판식 1부행사를 마치고 지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좌부터 유은형 안성시축산과장, 김인식 (주)체리부로 회장, 김명호 지부장, 최준구 본회회장, 신우철 안성축협조합장, 정기훈 안성시의회 의원, 이덕수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장)

대한양계협회안성육계지부(지부장 김명호)가 지난해 5월 20일 안성시 가사동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희 안성시장을 비롯 본회 최준구 회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행사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명호 지부장은 회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권익 보호에 앞장

안성지역은 40여 농가가 육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 200여만수의 사육규모를 갖고 있다. 현재, 회원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33가구(180여만수)로 비회원 농가들도 회원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안성지역의 모든 육계농가들이 100% 참여할 수 있는 지부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성지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및

계열화 사업의 확대로 육계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모임체 결성을 준비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18일 김명호 준비위원장을 주축으로 발기인대회를 갖고 회비납부 방안과 사무실 운영계획 등 지부설립을 준비해왔으며, 3월 9일에는 지부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양계협회 이사회(4월 22일)에서 지부승인을 인정받으며 지부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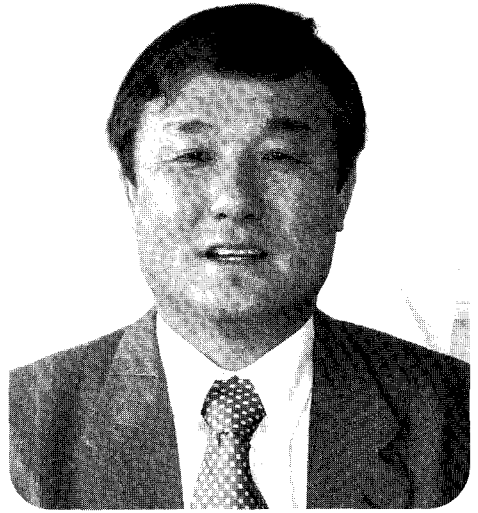
김명호 지부장은 지부결성을 통해 시, 축협,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산단체장들과의 정기적인 월례모임에 정식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육계업의 위상을 한층 높여갈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시, 축협 등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육계인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약속하였다.

김명호 지부장은 우선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관급백신 공급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면서 질병 방역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동희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안성지부의 결성을 축하하고 육계업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육계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육계업 위상 제고

회원들의 대부분이 계열화에 참여하면서 계열업체들과의 불평등한 계약조건으로 농가들이 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은 과감히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회원중에 모든 계열사들



육계 당면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는 김명호 지부장

과 거래하고 있는 농가별 운영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개선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농림부장관 주제로 열린 육계계열농가 위탁사육 관련 회의와 관련하여도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진정한 계열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김명호 지부장은 현재 안성시에서 13만수 규모의 무창육계사를 사육하면서 농가들에게 육계 사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양계협회 김정소장을 역임했던 한경택 부지부장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보급하면서 본회와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유지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해가고 있다.

▶ 임원명단

지 부 장 : 김명호
 부지부장 : 서영구, 한경택
 총 무 : 최원술
 고 문 : 최학기
 감 사 : 광기청, 양희창
 운영위원 : 서민호, 김석찬, 홍현표,
 김성준, 이병중, 이만우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